

20장_목포문화원

우리 고장의 숨결을 찾아서

우리는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학생입니다 .

지난 녀 달 동안 우리 고장, 목포의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한 현장답사 수업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야겠군요. 우리 학교는 목포시의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로, 1961 년에 세워졌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봉사 학교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들 62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시기를 놓친 어른들 1,300 여 분과 초등학교를 다니시지 못해서 글자를 익히지 못하셨던 할머니들 150 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라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곳을 우리의 배움터라 생각하고 있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의 우리 교실은 3 층과 4 층에 있습니다. 너무 높이 있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의 공간은 성인 학생들과 나뉘져 있어 우리들만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들은 일반학교와는 아주 다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외에도 요가, 도자기 공예, 유도 등 몸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수업을 하죠. 이렇게 우리들은 일반학교와는 다른 학교생활로 무척 바쁘답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들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건 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수업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수업들을 한다면 학교를 다니지 말라고 말려도 다니겠다!”

우리들에게는 학교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들고 힘든 곳인데.. 그래도 지난 녀 달 동안은 아주 재미있고 멋진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생활이 할 만 했습니다.

역사문화 체험이라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면 우리들은 역사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걸 왜 하나’, ‘소풍 가는 셈 치지.’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나섰습니다. 교실에서 하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수업이 될 테니까요.

목포문화원 홍성민 선생님의 친절한 안내로 시작된 우리들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고장의 숨결을 찾아서는 원래 목포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절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목포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문화원의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맡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특별히 14 주 동안이나 목포의 문화유적을 살살이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목포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동안 길을 지나면서 무심히 보아왔던 비석이 ‘목포진유적비’라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예전의 ‘목포진성’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목포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목포문화원에 슬라이드를 보러 갔습니다. 문화원으로 가는 오르막길에서 ‘도로원표’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돌은 이 곳이 한반도 도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념석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지나쳤는데, 그 의미를 알고부터는 색다르게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원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목포문화원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문화원 건물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00 년에 일본영사관으로 지어졌는데, 일제시대 이후 목포시립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목포문화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들어서인지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통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건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화원 건물 뒤편에는 인공동굴이 있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전쟁에 대비한 방공호였다고 해요. 동굴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큰 바위를 사람의 힘으로 뚫고 이렇게 동굴을 파놓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말을 듣자 한낮의 무더위가 가시고 동굴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유달산에 오른다고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홍 선생님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와 수탈의 상징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을 탐방했습니다. 동양척식회사에 대해서는 국사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오래 전에 지어졌다는 건물이 어쩔 그렇게 거대한지, 그 대단한 규모에 놀랐지만, 우리나라의 물품을 착취하고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보니 나중엔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답니다.

한여름이 지났는데도 뜨거운 땀약별이 계속돼 우리들의 내고장 역사체험은 무척 힘이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유달산이었어요. 유달산을 중심으로 걸어 다니며 둘러봤던 문화 유적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이훈동 정원, 오포대, 목포시사 등이 무척 좋았답니다. 물론 무척 힘은 들었지만요.

산을 오르기 직전 우리는 이훈동 정원을 들렀는데, 이곳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일본식 정원으로 우리식과는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정원이 감탄을 자아내게 했죠. 이훈동 정원을 지나 유달산 등반이 시작됐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걸 꼭 올라가야 하나?’ 친구들은 하나 둘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냥 내려가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유달산 정상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죠.

유달산에 있는 목포오포대는 이름처럼 꼭 대포같이 생겼는데 시민들에게 정오를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달산 공원의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곳에 오르면 목포시내의 전경을 볼 수 있죠. 힘들게 올라온 데 대한 보답이라도 하듯 멀리까지 펼쳐지는 시원한 풍경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지쳤지만 내친 걸음을 옮겨 목포시사에 도착했죠. 목포시사는 구한말에 만들어진 건물로 봄, 가을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200 여 명의 유생이 백일장을 치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품이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날까지 한시의 명맥을 전수해온 국내 유일의 시사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왜 우리들 가슴이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고장 역사문화체험을 시작한지 몇 주가 흘렀는데요, 처음에는 집중도 못하고 딴전만 피우고, 재미없다고 슬그머니 빠지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었지만, 지금은 투덜거리면서도 빠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수업을 빠지면 우리들에게 무척 손해인 것 같아 빠질 수가 없어요. 인솔하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과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자신이 없지만,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공부도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재미있는 전설이 흐르는 삼학도에도 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삼학도에서는 재미있는 삼학도 전설과 함께 기억에 오래 남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쯤 등산하듯 삼학도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서서

목포시와 유달산을 한눈에 바라보며 홍성민 선생님께서 삼학도의 유래를 설명해 주셨죠.

옛날에 한 장수가 있었답니다. 이 장수는 자기가 도를 닦는 데 여자들이 방해가 된다면 여자들을 배에 태워 떠나보냈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배에 활을 쏘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이 빠져죽으면서 동시에 물에서 학으로 솟아올라 하늘로 날다가 살포시 바다 한가운데에 앉았는데, 그게 지금의 삼학도가 됐답니다. 물론 삼학도는 지금 매립돼서 육지와 연결됐는데요, 그런데 곧 삼학도 복원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다시 이름대로 섬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하도의 푸른 파도

늦은 가을 우리들은 고하도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화해설사 선생님 한 분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지 수업은 더 알차고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고하도는 목포에서 배로 불과 10 여 분 거리이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섬이기도 했죠. 고하도에서는 이 충무공 유적지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후 고하도로 진을 옮겨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력을 재정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성을 수축하고 107 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목포 바로 앞 바다의 노적봉 전설이 바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전설이었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적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문화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몇몇 친구들은 장군의 흉내를 내며 칼싸움도 해보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지난 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

망망한 바다에도 배를 띄워보자

소낙비 하늘조차 피하지는 말고

꿈과 희망 온통 실어 배를 띄워보자

우리들의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

동요하는 배들은 닻을 내려라
흔들리는 삶 속엔 희망이 없어
고독한 밤배도 노를 저어 가자
우리들의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

찬 겨울 바다에도 배를 띄워보자
거칠은 파도조차 두려워 말고
빛과 사랑 가득 실어 배를 띄워보자
우리들의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
동요하는 배들은 닻을 내려라
흔들리는 삶 속엔 희망이 없어
외로운 항해도 노를 저어 가자
우리들의 푸른 꿈이 그곳에 있다면

소중한 체험

돌아보니 지난 14 주 동안의 ‘역사문화체험’은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걸어 다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역사를 발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야외에서 맘껏 웃고 조잘거리며 부족한 운동을 보충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위에 혹은 추위에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짜증났던 내 모습이 부끄러울 만큼 배운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문화유적지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내가 갔던 곳들을 지나치면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이런 나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역사문화체험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뻐고, 이 시간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전남 목포 제일정보종합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탈학교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우리 고장의 숨결을 찾아서’

전남 목포문화연대

